

열왕기상 20. 아람 군대를 물리친 ‘아합’ 왕 (왕상 20:1-43)

들어가기

본 장은 ‘아합’ 왕이 아람 왕 ‘벤하닷’의 군대를 두 번씩이나 물리치며 큰 승리를 거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당시 아람 왕 ‘벤하닷’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‘아합’ 왕과 이스라엘에 무례한 요구를 하였고, 이를 참지 못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반발하며 승산 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.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‘아합’ 왕에게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‘아합’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, 스스로 교만해져서 아람 왕 ‘벤하닷’을 살려주며 그와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. 그로 인해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셔서 ‘아합’ 왕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.

1. 아람 왕 ‘벤하닷’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. (1-12 절)

- 1) 아람 왕 ‘벤하닷’은 _____ 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 쌓습니다. (1-2 절)
 - 32 명의 왕들이란 당시 다메섹을 중심으로 아람을 다스리던 ‘벤하닷’이 각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웠던 지방 각 성의 성주들을 말함.
 - 그런데 ‘벤하닷’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 32 명의 성주들을 다 데리고 참석했다는 것.
 - 아마도 자신이 다메섹을 비운 뒤, 흑시라도 생길 반란을 염려해서가 아닐까?
 - 아무튼 당시 아람의 군대는 최소 10 만명이 넘었을 것!
 - 참고로 2 차 전쟁 때 보충된 인원을 근거
 - 29 절: 보병 10 만명이 죽음 + 30 절: 도망하다 성에서 죽은 자 2 만 7 천명 + 그 외
 - 그럼 반대로 당시 저들을 대항한 북이스라엘의 군대는? _____ 명
 - 15 절: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 명 +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정예병 7000 명
 - 곧 숫자적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승산 없는 전쟁이었음!!

2) 그로 인해 ‘벤하닷’은 ‘아합’ 왕이 들어주기 힘든 무례한 요구들을 요청하였습니다. (3-6 절)

- 그럼 ‘벤하닷’이 ‘아합’ 왕에게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가?
 - ①. ‘아합’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요구! (3 절)
 - > 이에 대한 ‘아합’의 반응은? (4 절) : ‘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’ 이라고 인정!
 - 결국 ‘아합’ 왕 스스로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믿지 못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상숭배가 헛된 것임을 증명! -> (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비교해 보라!)
 - 나아가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,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‘아합’의 비굴함을 보게 됨!
 - ②. ‘아합’ 스스로가 모든 것이 다 ‘벤하닷’의 것이라고 인정했으니, 자신의 신하들이 ‘아합’의 집은 물론이고, 모든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 마음에 드는 대로 가져갈 것! (6 절)

- > 그저 자신의 힘만 믿고 한없이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됨!
- > 잠언 16 장 18 절, ‘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’

3) 그러자 ‘아합’ 왕은 장로들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. (7-9 절)

- 이때 7 절, ‘아합’의 말을 주목!
 ‘... ,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!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,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’
-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.
 - ①. ‘아합’은 왜 처음부터 장로들과 의논하지 않았을까?
 - ②. 그가 악을 도모하는 줄 알았다면, 처음부터 당연히 반대해야 하지 않았을까?
 - ③. 지금 ‘아합’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,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?
- 이때, ‘아합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?
 - 8 절, ‘왕은 듣지도 말고, 허락하지도 마옵소서!’
- 결국 장로들과 백성들의 강력한 반대에 힘을 얻은 ‘아합’은 ‘벤하닷’의 요청을 거부하였음!!

4)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‘벤하닷’은 다시 사신을 보내서 ‘아합’을 위협하였습니다. (10-11 절)

- 10 절 주목!
 ‘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별 위에 별을 내림이 마땅하니라’
 - ‘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!’ => 곧 자신의 신을 두고 사마리아 성을 한 줌 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!
- 이 같은 ‘벤하닷’의 협박을 받은 ‘아합’ 왕의 반응은 어떠했는가?
 - 11 절, ‘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’ 고 답함!
 -> 전쟁을 시작하는 자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미리 자랑하지 말라는 유대의 속담!
- 참고: 사무엘상 17 장 47 절: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의 고백!
 ‘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.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,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!’

5) 이 말을 들은 ‘벤하닷’은 즉시 사마리아를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. (12 절)

- 그런데 당시 ‘벤하닷’은 32 명의 성주들과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!
 - 곧 술에 취한 ‘벤하닷’이 ‘아합’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즉시 전쟁을 시작하도록 명한 것!
 -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전쟁에 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닐 것!
 - 곧 당시 ‘벤하닷’이 얼마나 자신의 힘을 믿으며 이스라엘 군대를 하찮게 보았는지를 추측!

2. ‘아합’ 왕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‘벤하닷’의 대군을 두 차례나 무찌르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. (13-34 절)

1)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‘아합’ 왕에게 보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. (13-15 절)

- 13 절의 선지자의 말을 주목!
‘여호와와 말씀이...,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...’
- ‘아합’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지만,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,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시어 저들이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음!!
- ‘아합’ 왕은 선지자에게 누가,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물었음!
- 선지자는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 232 명 + 각 지역에서 뽑은 7000 명의 군사로 싸울 것!
- 참고로 여기서 고관의 청년들은 각 지방 장관들이 데리고 있던 젊은 부하들을 의미함!
- 따라서 당시 아람의 10 만 대군을 상대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7232 명이 다였음!
-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 하나!
- 14 절 마지막을 보면, 하나님은 ‘아합’ 왕이 먼저 공격하라고 명하셨다는 것!
- 결국 ‘아합’ 왕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아람의 대군을 무찌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친히 체험하고,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!

2) ‘아합’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230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할 무렵, ‘벤하닷’은 여전히 32 명의 성주들과 술 취해 있었습니다. (16-21 절)

- ‘벤하닷’은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오든지 무조건 사로잡으라고 명령함!
- 그러나 이스라엘의 젊은 장수 232 명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며 한 순간에 아람 군대의 사기를 꺾어버렸음!
- 그로 인해 ‘벤하닷’과 32 명의 성주들은 급히 말을 타고 도망치게 되었음!!
-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통해 나타나신 결과였음!!

3) 큰 승리로 들떠 있던 ‘아합’ 왕에게 선지자는 내년엔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 알려 주었습니다. (22 절)

-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결코 한 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!
-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모든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!

4) ‘벤하닷’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므로, 평지에서 싸우면 분명히 아람이 이길 것이라 말하며 다시 싸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. (23-25 절)

-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?
-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으로 추측!
-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가진 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? 보게 됨!!
- 이방인들은 신의 개념을 자신들이 보는 자연 속에 또 지역에 국한 시켜 이해했음.
-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믿게 됨!

- ‘벤하닷’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 일년 동안 잃어버린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충하고,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였음!
- 5) 일년 후 ‘벤하닷’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. (26-27 절)
- 이때 아람 군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때와 같다고 기록!
 - 비록 일년 동안 전쟁준비를 했으나, 대규모의 아람 군대를 상대하기엔 부족했을 것.
- 6)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시 ‘아합’ 왕에게 하나님께서 평지에서도 승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란 사실을 전하며 승리를 약속하였습니다. (28 절)
- 7) 결국 7일간 대치하던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또 다시 패하였고, ‘벤하닷’은 신하들과 도망쳐 한 성의 골방에 숨었습니다. (29-30 절)
- 우선 7일 동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대치했다는 것을 보면, 저들도 나롬 하나님을 두려워했음을 추측하게 됨!
 -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의 보병 10 만명을 죽였고, 저들을 피해 성으로 도망간 2 만 7 천명의 군사들은 성벽이 무너져 죽임을 당하게 됨!
 - 결국 하나님은 이번 전쟁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며, 온 땅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심!!
- 8) 이때 궁지에 몰린 ‘벤하닷’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들이니 굶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‘아합’ 왕에게 화친을 청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. (31-32 절)
- ‘굶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는 행위’는 종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!
 - 결국 ‘벤하닷’의 신하들은 ‘아합’ 왕의 종으로 자처하며, ‘아합’ 왕에게 나가 ‘벤하닷’이 ‘아합’ 왕의 종이라 칭하며 살려달라고 간청함!!
 - 1 년전 ‘아합’ 왕은 ‘벤하닷’을 자신의 주인이라 칭하며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나아갔음!!
 -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, 전세는 역전되었음!!
 - 결국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!!!
- 9) ‘아합’ 왕은 자신을 높이며 생명을 구하는 ‘벤하닷’의 신하들을 보면서, ‘벤하닷’을 형제처럼 받아 주었습니다. (33-34 절)
- 특별히 ‘벤하닷’의 신하들이 ‘형제’라는 말을 ‘좋은 징조’로 여겼다는 것을 볼 때, 저들의 말은 진심이 아니며, 그저 ‘아합’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계략이었음을 알게 함!
 - 그러므로 저들은 ‘아합’의 말을 바로 받아서 ‘벤하닷’이 ‘아합’의 형제라 강조하며, 화친을 맺자고 청함!!
 - ‘아합’ 왕은 이 같은 저들의 말에 현혹되어 형제(?) ‘벤하닷’을 병거에 태워 맞아들였음!
 -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!!
 - 42 절에서 하나님은 벤하닷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음!
 - 그는 하나님을 산의 신이요 평지에서 패할 신이라 모독 +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!
 - 그런데 ‘아합’ 왕은 그런 자를 형제로 여기며 병거를 태워 맞이함!!

- 참고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행하는 선, 자신의 의를 세우고,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 선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선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!
- ‘아합’은 화친의 대가로 ‘벤하닷’의 아버지가 배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 받고, 다메섹에 자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받고 ‘벤하닷’을 돌려보냄.

3.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‘아합’에게 보내어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. (35- 43 절)

- 1)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에게 자신을 치라고 요청하였습니다. (35-37 절)
 - 그러나 그 친구는 이 요청을 거절하였음!
 - 그러자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사자에 물려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, 그 친구는 선지자의 말대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음!!.
 - 그러자 선지자는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칠 것을 요청하였음.
 - 그러자 그 친구는 선지자가 상하도록 쳤음!
 - 이 일은 곧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,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시키신 일!
- 2) 그 후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려 변장한 뒤, 길에게 ‘아합’ 왕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. (38-43 절)
 - ‘아합’ 왕을 만난 선지자는 ‘아합’에게 한가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함!
 -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한 사람을 말기며 그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 한 달란트로 대신해야 한다고 했음!
 - 그런데 자신이 어찌 하다가 그 말은 사람을 잃어 버렸는데,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음!
 - 이 말을 들은 ‘아합’ 왕은 ‘네가 스스로 약속한 것이니 스스로 책임을 지라’고 판결함!
 - 그러자 선지자는 변장한 것을 벗고,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‘아합’ 왕에게 말긴 ‘벤하닷’을 ‘아합’ 왕 스스로가 자신의 뜻대로 놓아주었으니, ‘아합’ 왕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,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선언함.
 - 이 말을 들은 ‘아합’ 왕은 심히 근심하며 왕궁으로 돌아갔음!
 - 본문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은. 원어적으로 ‘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’ 돌아갔다는 의미!!
 - 곧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‘아합’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보다는 선지자의 말에 또 하나님께 화를 내며 돌이키기를 거절했음!

4.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?

5. 중보기도 나눔